

프롤로그

창밖으로 희미한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은 아무것도 위로하지 않은 채 그저 사무실 안을 어슬렁거렸다. 지난 몇 년간 이곳에서 보낸 수많은 밤과 새벽,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 이 공간은 비워질 예정이었고, 나의 꿈도 그와 함께 정리될 터였다.

서류의 빈칸을 바라봤다. 아직 날짜란이 비어 있었다. 날짜를 적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손이 떨렸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백 번도 더 생각했었지만, 정작 그것을 눈앞의 종이 위에 적어야 하는 순간이 오니 나는 망설이고 있었다.

벽에 붙은 여러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최종 합격 공고', '선정 통지서', '수상 확인서'. 이제는 빛이 바래버린 그 종이들은 내게 꿈을 약속했던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은 단지 내가 걸어온 고된 길의 흔적일 뿐이었다.

언젠가부터 이 사무실엔 침묵만이 남았다. 팀원들도 하나둘 떠났고, 걸려오는 전화조차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끊겼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나 혼자였다. 이제는 전화벨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내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이 공간에 겨우 살아 있는 생명의 흔적을 남길 뿐이었다.

고개를 들어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자동차들은 끊임없이 움직였으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실패한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문득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설렘과 기대감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정부의 지원과 약속

들이 나를 더 강하게 밀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을까. 아니, 그저 내가 너무 평범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성실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성공을 허락하지 않는지도 몰랐다. 혹시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한 건 아닐까, 그마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 한숨과 함께 내 안의 마지막 남은 저항도 사라졌다. 이제 나는 이 종이에 날짜를 적을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위로조차 지금은 공허했다. 그저 고요한 침묵과 마주할 뿐이었다.

서류 위로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날짜란에 오늘의 날짜를 적기 시작했다. 오늘, 나의 스타트업이 실패했다.

1장. 시작의 설렘

처음 창업을 꿈꾸게 된 날을 정확히 기억한다.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그때 나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다. 직장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반복되는 업무와 뻘한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를 지치게 만들던 때였다. 그래도 회사는 나에게 안정적인 월급과 명함을 제공했다. 그 명함 하나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내 명함을 자랑스레 꺼내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안정감이 묘하게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의 사람들처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비슷한 일만 반복하다가, 또다시 같은 길로 퇴근하는 삶이 내 미래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그때였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창업 지원사업 설명회라는 공지를 본 것은. 처음 그 공지를 보았을 땐 아무 생각도 없었다. 사실 창업이란 나와는 무관한 세계 같았다. 하지만 무언가 끌림 같은 것이 있었다. 아마도 '내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라는 아주 작은 호기심이었던 것 같다.

호기심은 때로 사람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곤 한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사업 설명회장으로 향했다. 자신들의 꿈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생소한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설렘'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지도 몰랐다.

발표자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설명했다. 다양한 지원사업들의 이름들이 생경하게 다가왔다. 발표자는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참 묘하게 나를 흔들었다. 내가 세상을 바꾼다니.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 중 하나로 살아가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조차 그 말은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문득 서점에서 창업 관련 책들을 뒤적이게 되었다. 창업 성공담, 실패담, 스타트업 전략, 정부 지원사업 성공 활용법. 그런 책들을 보며 나는 다시 그 설명회에서 느꼈던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묘한 감정을 떠올렸다.

나는 차근차근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정부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창업 지원 커뮤니티에 들어가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다시금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설렘,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신선했다.

주말이면 창업자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교류했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곳에선 누구도 나의 꿈을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마침내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내게 물었다.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를 두고 굳이 위험한 길을 가겠다는 이유가 뭐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인생에 한 번쯤은 저만의 것을 만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회사를 나온 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마치 처음 바다에 뛰어드는 아이처럼, 무작정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이 선택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전혀 몰랐지만, 당시의 나는 적어도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충분히 행복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가 발을 내디딘 이 새로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외로울지,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국은 쓰디쓴 실패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의 나는 단지 설렘에 가득 찬 채,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그림자는 전혀 보지 못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2장. 달콤한 유혹

창업을 결심하고 회사를 떠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익숙했던 안전한 배에서 내려, 드넓은 바다 위 작은 배 한 척에 홀로 오른 것 같았다. 자유로움과 불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

는지 확인해줄 동료나 상사도 없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곧 지원사업 준비와 함께 찾아온 기대감으로 가려졌다. 수많은 정부지원사업 공고가 매일 업데이트되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었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경쟁률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했지만, 지원서를 제출하고 얼마 뒤 최종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나도 당당히 창업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날 밤 나는 작은 원룸에서 맥주 캔을 열고 자축했다.

정부지원사업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이후, 창업 준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팀원을 모았으며, 팀원들과 함께 작은 공유 오피스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저렴한 책상과 의자를 주문하고, 벽에는 프로젝트 일정과 할 일 목록을 적은 큰 화이트보드를 걸었다. 이제 막 출발하는 나에게 그 작은 사무실은 어떤 대기업의 화려한 사옥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만드는 제품이 반드시 시장에서 성공할 거라 믿었다. 지원금을 바탕으로 시장 조사와 아이디어 검증에 몰두했다. 하루는 팀원들과 함께 무작정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기도 했고, 또 하루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생각한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돌리며 밤을 지새웠다.

정부지원사업은 마치 창업의 정답을 미리 제시하는 듯했다. 중간중간의 평가와 발표 준비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평가위원들의 피드백은 언제나 예리했고, 우리는 그 피드백에 맞춰 제품과 사업 계획을 계속 다듬었다. 마치 지원사업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로 도전한 지원사업 역시 합격했다. 나는 점점 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언젠가는 뉴스나 잡지 인터뷰에서 나의 이야기가 실릴지도 모른다는 상

상까지 하며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지원금이 늘어날수록 사업을 운영하는 내 마음속의 불안도 점점 커졌다. 나는 그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팀원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도, 밤늦게까지 제품 기획서를 수정할 때도 그 불안은 작은 그림자처럼 늘 내 곁을 맴돌았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사업 계획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는 도시의 풍경이 보였다. 거리의 불빛들과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내가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문득 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을 애써 무시했다. 성공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곧 출시될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로 넘쳐났다.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논의하며 설렘, 그렇게 미래를 상상하며 한껏 들뜬 채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점점 더 지원사업에 맞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실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장에서의 진짜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의 모든 계획과 아이디어는 평가위원의 입맛과 지원사업의 기준에 맞춰져 있었고, 정작 중요한 시장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정부지원사업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서서히 나의 현실감을 무디게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달콤함에 취해, 조금씩 현실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닥칠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임을,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종종 서류 작성과 증빙을 위한 업무가 실제 사업 운영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의 강도 높은 일정이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지원사업의 규정상 나는 끊임없이 중간 평가와 멘토링을 받아야 했다. 평가를 받을 때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새 나의 업무의 대부분은 제품 개발보

다는 서류 작업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창업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힘들고 복잡한 과정 속에서 버티고 견뎌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이 있기에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므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멘토링 시간, 나에게 배정된 멘토는 사업 경험이 풍부하다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내가 만든 자료와 제품 아이디어를 검토했다. 처음에는 그의 피드백이 구체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멘토의 조언은 점점 모호해졌다. 어느 날 멘토는 나에게 말했다.

"이 사업 아이디어는 괜찮긴 한데, 정부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더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보세요."

나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시장과 고객이 아니라 심사위원의 입맛에 맞추라는 그의 조언이 묘하게 불편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야만 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고, 그 지원금 없이 사업을 운영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객 설문이나 시장 조사 대신, 심사위원들이 중요시하는 항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제품의 기술적 요소와 혁신성, 사회적 가치 등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발표 자료에 멋진 단어와 그래픽을 넣는 데만 며칠씩 시간을 쏟았다. 실제 제품 개발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가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늦은 밤 창밖으로 보이는 텅 빈 거리는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불안과 초조함은 점점 더 커졌지만, 그런 감정을 팀원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웠다. 나는 그저 내 안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평가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다음 평가 발표 날, 나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제품을 소개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하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장을 나오자, 팀원들은 나를 둘러싸고 축하를 건넸다.

"이번 평가도 잘 넘겼네요!"

"역시 준비한 대로 하니까 성공적이네요."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한 공허감이 내 안을 채우고 있었다. 이 성공은 진짜 성공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방향인가? 나는 그 질문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이제 지원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 공고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지원사업이라는 달콤한 유혹의 덫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것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는 그때까지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시작하는 나 자신이 꽤나 진취적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정부라는 든든한 후원자와 함께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나서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아닌, 정부지원사업 그 자체를 위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원금이 끝나갈 무렵, 나는 다음 사업 공고를 기다리며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기존의 아이템을 '고도화' 또는 '스케일업'이라는 명분 아래 포장하고, 이전 평가자들의 코멘트를 반영해 문구를 다듬고, 발표 형식을 바꿨다. 발표자는 나로 고정되었고, 슬라이드엔 그럴듯한 수치와 그래프를 덧붙였다. 고객 수요가 아닌, 심사 기준에 맞춘 기획. 우리가 팔고자 했던 것은 제품이 아니라, '지원 가능성'이었다.

팀원들과의 대화도 점점 바뀌었다.

“이번엔 기술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쪽을 더 강조해보죠.”

“좋아요. ESG 같은 키워드 많이 넣고요. 평가위원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어느새 나는 제품이 아닌 ‘문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무실은 매일같이 바쁘고 활기찼다. 이메일, 회의, 보고서 작성, 발표 리허설까지. 바쁠수록 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제품의 본질, 고객의 반응,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한 번은, 멘토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혹시 너무 지원사업에만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멘토는 말을 이었다.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지원’일 뿐이에요. 중심은 항상 ‘시장’이어야 하죠. 지금은... 평가를 위한 준비가 너무 많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날카롭게 들려왔다. 나는 시장에서 싸울 준비가 아니라, 계속 심사위원 앞에서 경쟁할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주 솔직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지원금은 나를 살렸지만, 시장은 나를 잊었다.”

노트 옆엔, 심사 통과 후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나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며, 나의 사업의 정체성이 점점 불분명해졌다. 처음엔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도구'를 만든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만 남아 있었다.

회의는 언제나 새로운 지원사업 공고로 시작했고, 그 공고에 맞춘 새로운 아이템과 서류 포맷을 조정하는 일로 끝났다. 나는 점점 더 '문서 속 기업'이 되어갔다. 실제 고객은 점점 사라졌고, 시장은 멀어졌으며, 현실의 매출은 제자리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가졌다.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진짜 고객 만나본 게... 최근에 언제였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뭔가 말할 듯 말하지 못한 채 눈을 피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에게 고객은 보고서 상의 숫자일 뿐이었다. 인터뷰를 가장한 인용 문장, 설문지로 수집된 막연한 '잠재 고객군', 혹은 평가자료 속 가상의 '페르소나'였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나?”

정답은 여전히 '심사위원'이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우리 사업은 계속 됐고, 아니면 멈췄다.

이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너무 많이 베팅한 뒤였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얻으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어쩌면 그것은 신기루였다.

하지만 나에겐 그것뿐이었다.

이쯤 되자, 나는 하루하루가 평가일정과 공고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사업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삶은 정체되어 있었다. 나는 정지된 꿈 속을 계속 달리고 있었다.

3장. 내부 갈등과 팀원의 이탈

팀은 세 명이었다. 나, 그리고 두 명의 팀원.

한명은 개발자, 다른 한명은 마케팅과 브랜딩을 맡던 친구였다. 둘 다 초기부터 함께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었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도 충분했다. 처음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가끔 의견이 엇갈려도 치킨 한 마리와 맥주 몇 캔이면 해결되었다.

처음으로 갈등이 표면화된 건 시제품 개발 초기였다.

개발자였던 그 친구는 현장 경험이 풍부했지만, 스타트업 특유의 빠르고 유연한 작업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늘 "기술적 완성도"를 우선했고, 나는 현실적인 "시연 가능성"과 "평가 통과용 스펙"을 요구했다.

"이 기능은 넣는 데 3주가 더 걸려요."

"우린 발표까지 2주밖에 없어."

"그럼 덜 완성된 제품을 보여주자는 거야?"

"지금은 평가를 통과하는 게 먼저야. 평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계속 숨 쉴 수 있어."

그때 나는 내가 '고객'이 아니라 '평가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말했다. 개발자의 표정이 굳었다.

이후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회의 시간에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작업 중에도 서로 모니터만 바라봤다. 한때는 자정 넘은 시간까지 웃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하던 사무실이, 이젠 마치 공기마저 건조해진 듯 침묵이 감돌았다.

마케팅을 맡던 친구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우리 브랜드의 방향성과 가치에 회의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SNS 홍보에 쏟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반응은 점점 줄었다. 그는 어느 날 회의에서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 브랜드 메시지, 계속 바뀌잖아. 애초에 우리가 뭘 하려는 회사였지?"

나는 정리된 답을 해줄 수 없었다. 제품도, 타겟도, 비전도 그때그때 지원사업에 맞춰 조정됐기 때문이었다. 그건 단기적으로는 영리했지만, 사람을 지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무표정해졌고, 퇴근 시간은 점점 빨라졌다. 사무실엔 늦게까지 남아 있는 나와, 한숨 섞인 키보드 타건 소리만 남았다.

팀 내 첫 번째 이탈자는 개발자였다.

그는 어느 날 오후,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게 건넸 뒤 말했다.

"미안해요.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유를 묻는 것조차 무의미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오래 고민해왔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챘다.

그가 떠나던 날, 나는 아무 말 없이 악수만 나눴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나 스스로도 이 회사에 신뢰를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후, 마케팅을 담당하던 친구도 말했다.

"저도 잠깐 쉬고 싶어요. 좀 멀리서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그건 사실상 이탈이었다. 그가 다시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나도,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사무실엔 나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의 형광등은 부서질 듯이 깜빡였다. 책상 위에는 끝나지 않은 보고서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그리고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의 온기마저 식어버린 의자들이 있었다.

그날, 나는 오래도록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였다.

혼자 남겨진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그전까진 늘 누군가의 타자 소리, 커피머신의 지직거림, 종종 팀원들 사이의 가벼운 농담이 흘러나오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단 하나, 형광등에서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만이 허공에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침묵과 마주했다.

정면에 놓인 화이트보드엔 지워지지 않은 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8월 중 MVP 완성', '10월 중 사용자 테스트' 같은 낙관적인 계획들. 그 아래 '우리 왜 이걸 하나요?'라고 작게 적힌 낙서가 보였다. 아마도 팀원 중 누군가가 장난처럼 적어두었을 것이다. 그 문장이 오늘 따라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다가왔다.

내가 이 회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세상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어떤 가치도 만들지 못한 채, 책상 위에 쌓인 서류 속 숫자들과 심사 결과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혼자 출근하고 혼자 퇴근했다. 팀원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내가 개발, 기획, 회계, 행정, 고객 응대까지 전부 맡아야 했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지원사업의 일정은 냉정했고, 연기나 예외는 허락되지 않았다.

보고서를 쓰다가도 중간에 전화가 오면 외주 업체와 납품 일정을 조율해야 했고, 도착한 택배 박스를 풀며 조립을 직접 해야 하는 날도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서야 편의점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사무실의 탕비실 냉장고엔 이제 커피 캔 하나만이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나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조용히 닫은 후, 나는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셨다. 봄이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그 바람조차도 내게는 왠지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혼자 버티던 어느 날, 나는 무의식적으로 전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

내고 있었다.

'잘 지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번 발표에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중 한 명은 아예 답이 없었고, 다른 한 명은 단답형으로 '힘내세요'라는
말만 보내왔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여기 남은 사람은 오직 나 혼자였다. 그게 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금 사업계획서를 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문장 하나하나가 낯설게 다가왔다. 이건 내가 원하던 내용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함께 꿈꿨던 계획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업용어와 수치, 도표와 가설은 이제껏 한 번도 시장에 나가보지 않은 허상의 기획일 뿐이었다.

나는 모니터를 끄고, 어두운 사무실 속에 조용히 앉았다.
텅 빈 의자 두 개를 바라보며, 문득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아니었다. 혼자 하는 창업은 상상보다 훨씬 더 외롭고, 훨씬 더 지독했다.

그리고 나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4장. 시제품의 늪

팀이 해체되고 혼자가 된 후, 나는 곧바로 제품 개발 일정에 다시 착수했다. 시간은 없고 해야 할 일은 넘쳐났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기술적인 역량은 내 전문이 아니었다. 그간의 개발은 주로 외주에 의존해 왔고, 팀원이 있을 땐 그래도 어느 정도 내부에서 조율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외부 업체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다. 문제는 그 의지가 '통제력 없음'으로 직결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맡길 수 있는 프리랜서 개발자를 수소문해 계약했다.

처음 며칠간은 순조로워 보였다. 그는 밤에도 응답했고, 피드백도 빨랐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일정과 견적서를 맞춰갔다.

하지만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응답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일정을 점검하던 중, 나는 중요한 기능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을까요?”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원래 제가 하는 범위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터졌다.

초기 미팅에서 분명히 합의한 내용이었지만, 계약서에는 그 세부 항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무력했다. 그리고 무력한 만큼 화도 났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조차 에너지가 필요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기능 목록을 정리해서 보냈다. 그리고 답을 기다렸다.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그즈음 나는 아침마다 설사와 두통을 겪었다.

아침식사를 하지 못한 채 편의점에서 커피만 사들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 눈 밑은 쉼하게 꺼져 있었다. 어느 날은 거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하지만 다시 책상에 앉아 메일함을 열고, 공고문을 확인하고, 견적서를 수정했다. 마치 의식처럼 반복되는 하루였다. 정신이 나간 듯했지만, 내 몸은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외주업체는 두 번째 갈등 끝에 계약을 해지했다.

나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개발을 맡길 사람도, 일정을 조율할 파트너도 없었다. 지원사업의 최종 결과물 제출 기한은 다가오고 있었고, 조달청에 등록된 장비 구매 내역은 이미 절반 이상 지출된 상태였다.

‘이미 쓴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돈을 써야 했다.

완성하지 못한 시제품, 기능이 누락된 프로토타입, 그리고 점점 무너지는 정신 상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안고, 나는 다음 외주처를 찾아야 했다.

나는 기술력보다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외주 개발자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 중소 업체에 연락을 넣고, 긴 미팅 끝에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정직해 보였고, 처음엔 열심히 따라왔다. 하지만 결국 이들도 ‘지원사업’을 잘 모른다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건 왜 이렇게 구성하신 거죠?”

“평가용이라 그렇습니다. 실제론 다르게 갈 예정이에요.”

“아, 그럼 이건 보여주기용인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보여주기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명확하

게 나를 때릴 줄은 몰랐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실제 제품이 아니라 '심사위원이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작업이었으니까.

외주사는 끝내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급하게 만든 시연 영상은 미완성 상태였고, 소리는 어긋났고, 버튼은 눌러도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억지로 삽입했다.

평가 당일, 나는 그 영상을 틀며 말했다.

"현재 일부 기능은 구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연내 고도화 예정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평가장에서 내려오는 길, 나는 탈진한 상태였다.

지하철 역으로 가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길거리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문득 사무실에 걸린 액자 하나가 떠올랐다.

'혁신을 위한 첫걸음,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

그 액자는 첫 지원사업을 수료하면서 지원기관이 보내준 것이었다. 나는 그때 그 문구를 자랑스럽게 벽에 걸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았다. 도전은커녕, 매일이 땀질이었고, 혁신은커녕, 이미 고장 난 구조물 위에서 버티는 일이 전부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시제품 박스를 조용히 열어봤다.

겉은 멀쩡했지만 안에는 케이블이 덜 조립되어 있었고, 나사가 빠진 부분이 눈에 띄었다. 그 상태로 배송받은 것이었지만, 당시엔 일단 포장만 멀쩡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조립을 다시 시작하다가, 나는 그만 손을 베고 말았다. 작은 상처였지만 피가 스며나왔다.

나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내려놓았다.

잠시, 아주 긴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이걸 내려놔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지원사업의 최종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내 일상은 점점 초조함으로 얼룩졌다.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선 시제품의 사진, 사용 시나리오 영상, 기능 설명서, 그리고 실제 동작 증거까지 필요했다. 문제는 '동작하지 않는 제품'을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나는 제품이 작동하는 듯한 장면만 잘라서 영상으로 편집하고, 설명서는 '구현 예정'이라는 문구로 절묘하게 넘어갔다.

처음엔 그런 식의 포장이 양심에 걸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필수가 되어 있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자부심으로 창업을 시작한 나였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 비겁함조차 감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제출 마감 하루 전이었다.

갑작스럽게 담당 평가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문서에 적힌 기능 중 하나에 대해 실사용 영상을 추가 제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설계는 돼 있었지만, 실행은 커녕 시뮬레이션조차 안 된 상태였다.

나는 일단 “확인 후 회신드리겠다”고 답한 뒤, 급하게 외주사에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밤 10시. 응답은 없었다. 메신저 상태는 '마지막 접속 2일 전'. 결국 나는 내 손으로 허접한 프로토타입을 다시 조립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납땜 도구와 코드 조각들, 테이프로 임시 고정해 버튼, 미세하게 반응하는 센서들... 완성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의 결과물이었다.

그걸 카메라로 찍어 몇 시간 동안 영상 편집을 하다, 새벽 4시에 결국 쓰러져 잠이 들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오전 7시. 제출 마감 두 시간 전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전날 밤 쓴 보고서에 마지막 수정을 가한 후 전송을 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슬퍼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너무 지쳐 있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나는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 창문을 보니,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버스는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 나는 그 장면들이 무슨 상관도 없는 세계처럼 느껴졌다.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진 기분이었다.

이제 내가 남긴 것은

- 미완의 시제품,
- 보조금을 채우기 위해 급조한 문서와 영상,
- 마감일에 쫓겨 기능 없이 출품된 장비 한 대,
그리고 점점 공허해지는 마음뿐이었다.

5장. 지원사업의 모순

보고서를 제출한 뒤 찾아온 며칠 간의 정적은, 내게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착각을 안겨주었다.

어떤 의무도 없고, 촉박한 마감도 없는 나날.

그러나 그 여유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기력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하루를 통째로 흘려보낸 날이 이틀, 아니 삼일쯤 되었을까.

메일함을 확인해 보니, 다음 정부지원사업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었다. 내용은 익숙했다. 항목도, 평가 기준도, 심사 방식도, 쓰여 있는 언어마저도. '기술성', '창의성', '시장성', '정책부합도'. 그 말들이 이제는 의미 없는 장식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작년 발표평가 자료를 열었다. 그 안엔 수많은 슬라이드와 표, 예측 그래프, 고객 분석, 경쟁사 포지셔닝 맵이 있었다. 그 그래프의 수치 중, 실제로 실현된 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발표는 통과했었다.

그리고 '통과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자산이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 시스템은 옳은 걸까?

지원사업은 분명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마중물이었고, 나도 그것을 통해 시작했다. 문제는, 마중물이 주된 수입원이 되어버렸다는 점이었다.

시장은 언제나 '다음 공고'였고, 고객은 '심사위원'이었다.

이상하게도, 주변 창업자들도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상태였다.

지원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평가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공고문을 해석해주는 강의까지 있었다.

슬프게도 그 강의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서류를 통과하는 공식'이었다.

나는 그 강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술보다 서사가 중요합니다. 평가자는 사업의 완성보다 '스토리'를 봅니다."

'스토리'.

그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제품이 아닌 이야기만 팔고 있었다.

멘토링도 그랬다.

형식적으로 배정된 멘토는 매번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한 사람은 '너무 보수적이다'라 했고, 다른 이는 '시장성이 약하다'라 했다.

한 멘토는 '고객 반응을 데이터로 제시하라'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보다 팀의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매번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사람'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지치게 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최종성과평가'였다.

서류 검토와 발표를 마친 후, 한 심사위원이 내게 물었다.

"이 기술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죠?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술입니까?"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다른 위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정부가 지금 지원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

그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그건 경고였다. 이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정치적으로 설명 가능한 필요’에만 반응한다는 뜻이었다.

그 질문을 들은 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부가 원하는 이유를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보다, 시장이 원하는 이유를 만드는 게 더 어렵더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나도 웃지 않았다.

결국, 그 사업은 ‘부분 환수’ 판정을 받았다.

보고서상의 지표 일부가 충족되지 않았고, 실제 매출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환수 통보서를 출력하며 다시금 허탈하게 웃었다.

받을 땐 기쁘게 받았고, 쓰는 동안은 불안했고, 갚으라는 말엔 당연하다는 듯 사인했다.

그것이 창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시스템은 ‘성장’이 아니라 ‘관리’를 유도하고 있었다. 사람은 지쳐가고, 조직은 무너지고, 기술은 멈춰 있는데도, 문서만은 깔끔했다.

이쯤에서 나는 더 이상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

그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목표조차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었다.

6장. 시장이 없는 사업

보고서 제출과 환수 통보 이후, 나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한 장의 메모도, 한 줄의 일정표도. 컴퓨터는 켜져 있었지만 마우스를 잡을 이유는 없었고, 모니터에 흐르던 창업 커뮤니티 게시글들은 이젠 아무 감흥도 주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사업은 '실체 없는 일'을 반복하는 행위가 되었다. 신제품 런칭도 없었고, 신규 고객 문의도 없었으며, 심지어 불만 접수도 없었다. 고객이 없으니 피드백도 없었고, 피드백이 없으니 개선도 없었다. 시장이라고 부를 만한 실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나는 한때,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 제품 소개서를 들고 찾아다녔다. 지원사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디서나 통했다.

"창업패키지 선정기업입니다."

"벤처기업 인증기업입니다."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입니다."

이런 타이틀들은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보다 더 큰 신뢰를 줬다. 담당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 좋은 사업 하시네요. 조달 등록은 하셨어요?"

문제는 그들이 제품을 '구매자'로서가 아니라 '심사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

이었다.

조달 등록 여부, 물품 코드, 규격서, 납품 실적.
제품의 가치나 사용성보다 우선되는 것은 항상 '서류'였다.

한 번은 공공기관에 파일럿으로 제품을 납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기뻐하며 빠르게 포장하고 직접 납품까지 다녀왔다.
그리고 며칠 뒤,

“제품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이벤트용 전시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제품을 진지하게 쓰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나 자신이 더 괴로웠다.

어느 날, 정말 궁금해서 가상의 소비자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카페를 빌려 테스트 행사를 열고, 소상공인과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제품을 몇 분 만에 내려놓았고,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다.

“뭔가 어려워요.”

“이걸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게 더 직관적인 것 같은데요?”

나는 설문지를 다시 걷어오며 깨달았다.

지금껏 내가 개발한 기능은 **고객의 필요**가 아니라 **정부사업 공고문의 항목**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반응한 타깃은 고객이 아니라, 평가자였고 공무원이었으며 기관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혁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이었다.

하지만 내가 만든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 쓰이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사무실 한편에 박스 채 쌓여 있는 시제품들을 바라봤다.
각 박스엔 '사업용 전시물품', '기능 미확인', '외부반출금지'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한 박스를 열고, 제품 하나를 꺼내 쳐보았다.
기능은 켜졌지만 반응이 느렸고, UI는 여전히 엉성했다.

불편하다고 느꼈다.
그때 처음으로 '이건 정말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정직한 첫 평가였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가진 건 '시장에 실패한 제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 그 자체라는 것을.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시장 진입이 아닌,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과정이었다.
고객은 없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고객도, 단 한 번의 현장 사용도, 단 한 번의 돈을 받은
거래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잔인했다.

오랫동안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던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봄
햇살이 밀려 들어왔다. 오래 닫혀 있었던 창문은 뻑뻑했고, 창문 틀 사이로
쌓인 먼지가 털썩 내려앉았다. 그 먼지는 마치 이 사무실 안의 시간처럼, 오
랫동안 멈춰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시장을 향해 무엇을 한 것인가.

내 제품은 사람들의 어떤 불편을 덜어주었는가.
고객은 누구였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답을 내린 적이 없었다.

사업은 늘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제대로 묻지 않았다. 대신 나는 '누구에게 보여줄까'만 고민했다. 그 대상은 늘 기관이었다. 사람은 아니었다.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나는 가짜 시장을 떠도는 유령처럼, 심사표와 제안서 사이를 배회했다.

비슷한 사업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들 대부분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

매출은 없지만 보고서는 있었다.

고객은 없지만 기관 파트너십이 있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보고서의 성과지표가 부족할까' 하는 걱정이 먼저였다.

어느 날 저녁, 예전 팀원이 보내온 메시지를 받았다.

"잘 지내요? 요즘은 좀 괜찮아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괜찮은 척은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우리 그때 너무 열심히 '서류'를 만들었나 봐요. 제품보다 말이 더 정교했어요."

그 말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다.

그건 단지 과거를 돌이켜보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늪 속에 있는지를 직시하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이 제품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고객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었던가?'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머릿속이 아파왔다.

질문은 너무 기본적이었고, 나는 그 기본적인 질문조차 처음 던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사무실 근처 조그만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다.

창업 초기, 매일 이 자리에서 '혁신'과 '성장'을 그리며 사업계획서를 쓰던 공간이었다.

그때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때는 꿈이 있었고, 지금은 지침만 있었다.

그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고, 지금은 내 하루를 지키기도 벅찼다.

나는 천천히 마지막 질문을 적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노트북을 덮고 카페를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시장이 아닌 '사람'을 떠올렸다.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 무엇을 힘들어할까.

어쩌면... 그것이 진짜 시작이어야 했던 것 아닐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에 와서야 깨달은 것이다.

7장. 빛의 그림자

제품은 팔리지 않았고,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고, 지원사업은 끝나 있었다. 그러나 고정지출은 계속되었다. 사무실 임대료, 정기 구독한 협업 툴, 호스팅 비용, 그리고 이미 발주해버린 외주비 정산. 여기에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있었다.

사업자 통장에 찍히는 숫자들은 점점 작아졌고, 결국 바닥을 드러냈다. 그때부터는 카드였다.

사업용 체크카드가 먼저 막혔고, 신용카드를 꺼냈다. 처음엔 '한두 달만 버티면 뭔가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떤 문제도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한 건 겨우 몇십만 원 차이였다. 며칠 늦게 입금된 돈으로 밀린 요금을 막았지만, 다음 달은 더 버거웠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연체 금액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나는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곧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습관처럼 자동으로 나왔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지갑을 꺼내 신용카드들을 한 장씩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은색, 파란색, 붉은색. 다 제각기 다른 카드사였지만, 모두 내가 '신뢰받던 시절'에 발급받은 것들이었다.

이후로 전화는 하루에 서너 통씩 걸려왔다.

연체가 제속되자, 채권 추심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카드 채권회수 전담센터입니다. 고객님의 현재 채무 금액은..."

이제는 목소리에서 친절함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상대가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만큼, 더 이상 고객이 아니었다.

나는 '관리 대상'이었다. 시스템의 숫자 하나였다.

이메일에도 '채무 조정 안내', '연체 정보 등록 예정'이라는 제목이 가득 찼다. 사업용 메일을 열 때마다, 무언가 터질 듯한 불안이 심장을 압박했다.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입주사 대표가 내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잘 지내시죠? 얼마 전에 창업진흥원 발표 나왔던데, 또 선정되신 거예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 아뇨, 이번엔 안 됐어요. 다른 방향 생각 중입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카드 하나를 꺼내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예전에 만든 '법인카드'였다.

지금은 아무 데서도 쓸 수 없는, 단절된 조각 같은 카드.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입금 - 정부지원금

출금 - 장비, 외주비, 인건비,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

통장은 정직했다.

내가 무엇에 기대 살아왔는지를, 무엇으로 버텼는지를, 어떻게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통장을 복사해, 지원사업 정산 서류에 붙여야 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나는 사업을 한 게 아니었다.

그저 '지출과 정산' 사이에서, 통장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가며 견딘 것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빚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썼고, 되도록 외상은 피했고, 대출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창업 후의 나는, 한 달을 넘기기 위해 그 모든 다짐을 하나씩 꺾었다.

카드를 쓰지 않으면 택배를 받을 수 없었고, 외주비를 밀리면 협업이 끊겼으며, 대출 없이는 월세를 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필요했고, 나는 그 생존을 반복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빚을 갚는 데 또 다른 빚을 써야 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는 차분했지만, 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정보 등록 예정'이라는 말을 분명히 남겼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상대의 목소리를 그냥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금액은 몇 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 몇 십만 원을 만들기 위해 지금 내게 남은 건 없었다.

살던 원룸 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소액대출은 이미 두 차례 연장되었고, 마이너스 통장은 더 이상 마이너스마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이자율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고, 내가 다시 시작하려는 그 어떤 미래도 가로막

는 벽이 된다.

그럼에도 나는 '일단 막는다'는 생각뿐이었다.
눈앞의 오늘을 막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내일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핸드폰 벨소리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모르는 번호가 뜨면 일단 숨을 쉬고, 수화기를 들면서 다섯 번 정도 심호흡
을 했다.

상대가 어떤 목소리인지에 따라 하루의 감정선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벨소리를 꺼버렸다.
그리고 '진동 모드'의 진동조차 꺼버렸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안하고, 받으면 더 불안한 이상한 상태.
나는 그 경계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
다.
카드를 내밀었는데, 기계에서 '잔액 부족'이라고 떴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계산원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라고 물었고, 나는 얼버무리며 휴대폰으
로 계좌이체를 시도했다.
하지만 인터넷뱅킹 앱은 로그인되지 않았다.
너무 지쳐서, 비밀번호 네 자리가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결국 라면을 내려놓고 매장을 나왔다.
비닐문을 젖히며 나올 때 들린 '딩동' 소리가, 내 등 뒤로 삶이 조용히 닫히
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웅크려 누웠다.

배가 고프다는 감각도 잊혀진 채, 나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 있는가.”

8장. 우울증이라는 늪

몸이 무거웠다. 머리도 무거웠고, 마음은 더더욱.
정신이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다.
말 못 할 만큼 복잡한 문제들이 겹쳐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
조금씩 내 안에서 고장 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였다.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고, 업무도 많았고, 먹는 것도 불규칙했다.
그러다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왔고, 잠들어도 깊게 자지 못하는 날이 반복
되었다.

자다 깨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는 법’을 잊게 된
다.

아침이면 눈을 뜨기가 무서웠다.
어딘가로 향할 필요도 없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사무실이든, 집이든, 어차피 나 혼자였다.
무기력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익숙해져갔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다.
메신저 답장은 점점 느려졌고, 미팅은 계속 미뤄졌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말하지 않고도,
행동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정말 괴로웠던 것은, 아무도 내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회사는 소규모였고, 나는 유일한 구성원이었으며, 외부에서도 이미 잊힌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나의 무너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무너졌다.
소리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식사는 하루 한 끼, 그것도 라면이나 편의점 샌드위치로 대충 때웠다.
종종 이틀을 굶기도 했다.
그때는 배가 고프다는 감각도 잊을 만큼 공허했으니까.
샤워는 3일에 한 번, 옷은 갈아입지 않았고, 거울은 보지 않았다.
방은 점점 지저분해졌고, 설거지는 쌓였으며, 빨래는 마르지 못한 채 곰팡이 냄새를 풍겼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왜냐면, 나는 이미 '스스로를 돌볼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끔,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사라진다면, 누가 알까?"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야 누군가가 눈치챌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면, 과연 슬퍼할까?"

그 질문은 처음엔 단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점점 더 자주 찾아왔다가, 어느 날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살아 있는 이유'를 계속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마땅한 답은 없었다.

그 무렵,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검색해보다가,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하게 되었다.

결과는, 심각한 수준.
문제는 그것마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 말고 이런 사람 많을걸.'
그렇게 현실을 회피하며, 나는 상담 예약조차 하지 못한 채 창을 꺼버렸다.

하루는 사무실 책상 위에서 눈을 떴다.
내가 거기서 잠들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불도 꺼지지 않았고, 노트북은 그대로 켜져 있었으며, 옷은 어깨를 덮지도 못한 채 구겨져 있었다.
목덜미가 결렸고, 눈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다.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그 상태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자리에 앉은 내 자신이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말도, 더 이상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다.
어떤 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위로도, 다짐도, 계획도, 눈물도.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저, 무너진 삶의 파편 위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아니, 누군가가 이해해준다고 해도,
그 이해를 받아들일 만큼 나 자신이 열려 있지 않았다.

몇몇 지인이 조심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었지만,

나는 대부분 씩 웃으며 “잘 지내고 있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었고, 동시에 방어였다.
내가 무너진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고,
정말 솔직해졌을 때조차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 것 같았다.

가끔은 SNS를 켜다.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동료들이 새로운 보도자료를 공유하고,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올리고,
해외 컨퍼런스에서 발표 중이라는 사진을 올릴 때면
나는 그 화면을 보며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저만치 앞서갔다.
‘나는 왜 안됐을까’보다는,
‘나는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다.

그리고 그 물음은 끝없이 나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다.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나서, 시간 개념도 무뎠졌다.
요일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날짜가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었다.
모든 날이 같은 색이었다.
회색이거나, 아주 짙은 회색.
빛이 없는 아침이었고, 저녁도 없었다.
그저 눈을 떴고, 다시 눈을 감을 뿐이었다.

나는 종종 스마트폰의 메모장에 의미 없는 문장을 적었다.
“나는 무너졌지만 아무도 모른다.”
“살고 있는 척을 오래 하다 보면 진짜처럼 느껴질까.”
“이제는, 무너지기조차 귀찮다.”

어느 날은 이런 문장도 적었다.
“내가 사라지면, 누군가 알아차릴까?”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썼다.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창업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않았다.

그건 '도전'이 아니라,

'무너짐의 단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망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9장. 포기의 용기

조용히, 정말 조용히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집이든,

다 닳아버린 신발이든,

혹은, 사랑했던 무언가—사업이든.

그날 아침, 나는 다 쓴 프린터 토너를 교체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그래왔던 것처럼,

무언가를 고치려 하지도, 유지하려 하지도 않았다.

프린터는 계속해서 빨간불을 깜빡였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콘센트를 뽑았다.

그건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나에게는 일종의 '종료 선언'이었다.

“그만하자. 이제는 놓아주자.”

나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커다란 캐비닛을 열었다.
지금껏 쌓아온 보고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중간보고서...

그 안엔 밤을 새며 만들어낸 글자들이 뵙뵙했다.
이루지 못한 꿈의 잔해들이었다.
그것들을 한 장씩 꺼내어 보다가,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처음 지원서를 쓸 때의 설렘,
멘토링을 받을 때의 기대,

1차 평가를 통과했을 때의 환호성...
모두 지나간 감정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들을 애도해야만 했다.
죽은 꿈을 위해, 조용한 장례를 치러줘야만 했다.

폐업이라는 단어는 차가웠다.
그 단어를 처음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나는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마음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나는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구두를 닦았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단정함을 유지하고 싶었다.
적어도 내 스스로를 존중해주고 싶었다.

나는 오랜만에 한강에 갔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강물의 잔잔한 흐름을 한참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어도 괜찮았다.
내가 나를 위해 건네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들은 그 어떤 조언보다 따듯했다.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버티는 법을 알게 되었고,
무너지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

다시 햇살 속으로

새벽 5시.
나는 아직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이른 아침에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밴 건,
아마도 그 수많은 조금했던 날들의 잔재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더 이상 열어볼 사업계획서도,
확인해야 할 미지급 세금도 없다.

내게 주어진 오늘은 그저 '하루'일 뿐이었다.
나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천천히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이젠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아도 된다.
'할 일 없음'이 죄책감이 아닌, 선물처럼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작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오늘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어제를 정리하는 용도로 쓰기로 한 지도 꽤 됐다. 페이지 위에 나는 이런 글을 썼다.

“실업자 37일째.

아직도 가끔 무의식 중에 ‘보고서 마감일’을 떠올리지만,

오늘은 커피를 내려 마셨고, 빨래를 널었다.

처음으로 강아지와 함께 낮잠을 잤다.

처음으로 제대로 쉰 하루였다.”

내가 남긴 흔적은 이제 ‘성과’가 아니라 ‘감각’이었다.

냄새, 온도, 눈에 비친 빛의 농도 같은 것.

그건 결코 벤처투자자들이 묻던 ROI 같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겐 삶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버스를 타고 익숙한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

창업 전 자주 가던 곳이었고,

망한 뒤에야 다시 찾게 된 장소였다.

에세이 코너를 한참 둘러보다가,

눈에 들어온 책 제목에 손이 멈췄다.

『나의 실패는 나를 어디로 데려다주었는가』

웃음이 나왔다.

그 책을 꺼내 들고 자리에 앉아, 첫 페이지를 넘기며 나는 생각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다시 어디론가 가보자.”

햇살이 참 좋았다.

유리창 사이로 스며든 햇살은,

그동안 내가 잊고 있던 ‘따뜻함’을 상기시켰다.

이제 나는 실패한 창업자가 아니다.

단지 창업을 했었고,

그 끝을 스스로 마무리한 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다.
이번에는 성과 대신 삶을 기준으로.
이익 대신 감정을 기준으로.
속도 대신 방향을 기준으로.

나는 이제 안다.
성공은 모든 걸 증명하지 않고,
실패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가 나를 전부로 설명할 순 없다.
그 모든 날들을 거쳐, 나는 더 단단해졌고,
이제 조금은 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을 나와 천천히 걷는 길.
발밑에 그림자가 생기고 있었다.
햇살이 따라왔다.